

Japan Green New Deal Forum 2010 보고!!

지난 4월 7일(수), 7일(목) 이틀간에 걸쳐 카나가와 사이언스 파크인 KSP 홀에서 TSUNAMI 발족 10주년 기념강연회 및 교환회 「Japan Green New Deal Forum 2010」가 개최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시작으로 대기업이나 금융 관계자 분들을 중심으로 총 4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모여주신 가운데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첫째 날 밤에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참가자 분들의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분이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인사 벤처 지원기구 TSUNAMI 이사장 이케모리 켄지 (경칭 생략)
■내빈인사 가와사키 시장 아베 다카오

■Opening Speech

주식회사 야나기 어소시에이츠 대표이사&CEO 이치류 요시오
주식회사 TSUNAMI 네트워크 파트너즈 회장 미노미야 타케오

■강연 「주목을 모으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 · 사회개혁」

에너지 전략 연구소 주식회사 연구소장 야마카 키미오

■강연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에너지보다 충분히 크나큰 에너지를 발전하는 태양전지: 박막실리콘 태양전지」

토호쿠대학 미래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교수 오오미 타다히로

■강연 「유기 EL 에 따른 산관학제휴」

야마가타대학 대학원 이공학연구과 교수 기도 준지

■강연 「전기자동차와 그 보급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게이오키슈쿠대학 대학원 정책미디어과 조교(주식회사 SIM-Drive 기술 총괄실 실장) 신카이 토모유키

■강연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인류의 예지」

교토대학 대학원 농학연구과 교수 우에다 미츠요시

■강연 「정보화시대, 및 포스트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기술경영」

도시샤대학 대학원 비즈니스 연구과 객원교수 니시구치 야스오

■강연 「파나소닉의 환경경영」

파나소닉 주식회사 환경본부 환경기획그룹 ES 리서치 센터 소장 시바이케 나리토

■강연 「전기자동차의 현장과 장래」

닛산자동차 주식회사 펠로우 쿠무라 하루요시

■강연 「도쿄전력이 생각하는 저탄소사회의 모습」

도쿄전력 주식회사 집행임원 가나가와 지점장 히로세 나오미

■Teacher company 회 코멘트

주식회사 TSUNAMI 네트워크 파트너즈 기술고문 나카가와 토미히로

■강연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전략 : 킹사우드 대학의 시점과 대책」

킹사우드 대학 리야드 인큐베이션센터 CEO Mezyad M. Alterkawi

■강연 「싱가폴 - 새로운 도시개발 솔루션의 이노베이션 lab」

싱가폴 경제개발청 글로벌 오퍼레이션 센터 디렉터(도쿄) Aris Toh

■강연 「그린 에너지의 개발전략 -Smart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공업기술연구원(대만) 부원장 Hsin-Sen Chu

■강연 「이용자 · 지역사회시점의 이노베이션」

경제산업성 대신 관방 참사관 (신수요 개척 · 고용창출담당) 야히로 토시히데

■강연 「인베스트 가나가와 2nd 스텝」

카나가와현 상공노동국산업부 산업입지과 산업입지그룹 그룹리더 야히로 유조

■파널 토론

「테크놀로지 벤처 승부를 가르는 자금조달력」

<모더레이터> 경제저널리스트 다카라베 세이이치

<패널리스트> 주식회사 디·엔·에이 대표이사 사장 겸 CEO 난바 토모코
주식회사 미츠비시도쿄 UFJ 은행 경제조사실장 우치다 카츠토
주식회사 리방프 대표이사 · 대표파트너 타마츠키 겐이치
일본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고 마사토시

■총괄강연 「그린 뉴 딜로의 전략적 시점」

재단법인 일본종합연구소 회장 테라시마 지츠로

■폐회인사

주식회사 TSUNAMI 온더로드 대표이사 사장 야마시타 카츠히로

◆교환회◆

■내빈인사

카나가와현지사 마츠자와 시게후미

카나가와시 부시장 오다 히로아키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대표이사 사장 오오키타 토모요시

<주최> 벤처기술기구 TSUNAMI <공동주최> TSUNAMI 네트워크 파트너즈, TSUNAMI 온더로드

<후원> 경제산업성, 카나가와현, 가와사키시, JETRO 요코하마, 일본 벤처캐피탈 협회, 도쿄전력 카나가와지점, 카나가와 산업 진흥센터, 카나가와 뉴 비즈니스 협의회, 요코하마 고도실장기술 컨소시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대일(대만일본)산업기술합작촉진회, 일본 MIT 엔터프라이즈 · 포럼, 일간 공업신문사, 카나가와신문사, tvk

<협찬> 팡켈, 케이에스피, 에바라 식품공업, 아사히, 시코, 카나가와현 신용보증협회, AOKI 홀딩스, PALTEK, 다카라인쇄, 닛코 코디얼증권, 토리코, 요코하마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다카하시 리이치로, 액세스 인터네셔널 외국법무, 아즈사 감사법인, 토호쿠대학 공학부 동창회 관동지구지부, 이와사키학원, 타무라공인회계사 사무소

Japan Green New Deal Forum 2010 보고!!

지난 4월 7일(수), 7일(목) 이틀간에 걸쳐 카나가와 사이언스 파크인 KSP 홀에서 TSUNAMI 발족 10주년 기념강연회 및 교환회 「Japan Green New Deal Forum 2010」가 개최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시작으로 대기업이나 금융 관계자 분들을 중심으로 총 4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모여주신 가운데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첫째 날 밤에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참가자 여러분들과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분이지만 하기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가와사키시장 아베 다카오 님의 인사 개략》

가와사키에는 많은 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기관들이 주된 연구개발의 거점을 두고 있는 곳이며, 우수한 연구자나 기술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의 재확장 국제화 등에도 발맞춰, 그 공항의 건너편에 위치하는 토노마치 3 초메지구에서는 환경분야나 라이프사이언스라는 산업들을 집적화함을 진행하며, 선도적인 연구개발의 거점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조달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CO2 소멸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기술 등의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低 CO2 가와사키 파일럿 브랜드라는 입지선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실현에 맞추어 환경기술의 해외이전을 통해 가와사키 지역에서 환경산업 혁신의 움직임을 세계로 전개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나 산업화의 실현에 있어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나가와현 지사 마츠사와 시게후미 님의 인사 개략》

카나가와현에서는 「인베스트 카나가와」라는 표제로 연구개발형 기업을 유치하여, 130개에 가까운 회사에 약 6천억의 새로운 투자를 실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직접투자나 유치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대처부터, 앞으로는 더욱더 연구개발지원을 실행할 프로젝트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과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개발이나 LED, 전기자동차 등 13의 리딩 프로젝트를 움직일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내세운 CO2 소멸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체계를 180도 전환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환경기술을 만들어 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자연계 신에너지, 축전지 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카나가와현에서도 선진적인 대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카나가와 지역에서 신기술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여러분들을 서포트 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향해 더욱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널 토론 개략》 ※VTR 방영

- 일본에서는 모든 것에 있어 개인보상을 추구하는 제도나, 기업가가 존경받지 못하는 문화 등의 벽이 크다. 컬처로서 벤처를 허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본은 개량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에는 앞서 있지만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아직 부족하다. 일본에서도 지적생산 거점으로서 세계적인 리더들을 불러들이는 시책 등 제대로 된 액션이 필요하다.

- 성공을 향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직접투자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 일본의 금융기관이 리스크에 대응한 프라이싱 이율을 결정하는 능력을 몸에 익혀 담보주의가 아닌 구미형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타이완, 싱가포르, 한국 등 Greater China의 영역이나 주변에는 일본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는 그것을 평가해주는 해외시장에서 하나둘 IPO 해나가며, 네트워크를 만들며, 자금조달을 해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일본도 변화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재단법인 일본 종합연구소 회장 테라시마 지츠로 님의 총괄강연 개략》

-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출동을 도모하여, 덧붙여 초금융완화 상태인 현상태에, 과잉 유동성이라는 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한 하락을 배경으로 한 머니게임의 되풀이라는 구도인 것이다. COP15를 통해서도 보이겠지만, 누가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인가 등의 정치 게임이나, 배출권으로 한몫 벌어보자는 머니게임의 의론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의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기술」과 「프로젝트」를 통한 대처가 제기되고 있다.

- 그린 뉴딜 컨셉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방정식은 「그린 뉴딜=EV(전기자동차)×RE(재생가능 에너지)×IT」이다. 전력·통신·더욱이 그 위에 얹혀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사업 모델에 누가 어떤 것을 구상하여 실현해 올 것인가 라는 국면에 있다.

- 스마트시티나 저탄소 인프라사업 등이 인프라상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야말로 숨을 삼키는 타이밍에 다가서고 있다. 냉전형 세계관, 즉 지정학적으로 밖에는 사물을 파악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네트워크와 소형분산이라는 「상관」이 이제부터 세계사를 쥐어잡을 기본적인 시점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형으로 물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요약은 강연내용을 기초로 사무국이 작성한 것입니다.



(왼쪽부터) 다마즈카 겐이치 씨, 난바 토모코 씨, 다카라베 세이이치 씨, 우치다 카즈토 씨, 고 마사토시 씨



TSUNAMI 비즈니스 플랜 발표회

in Japan Green New Deal Forum 2010

이어, 2 일째인 오후 2 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TSUNAMI 비즈니스 플랜 발표회 in Japan Green New Deal Forum 2010」에서 주목되는 벤처기업들(합계 13 사)의 프레젠테이션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발표회는 벤처지원기구 TSUNAMI 가 매월 정례행사로서 개최하고 있는 비즈니스 플랜 발표회와는 별개로 열린 발표회로 회장은 포럼에 이어 많은 참가자들로 넘쳤습니다. 한 개 회사에 10 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사의 충실한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이 행해졌습니다.

발 표 기 업 일 램 (발표순)

1. HYPER DRIVE 주식회사 (<http://www.hyperdrive-web.com/>)

발표자 : 요네무라 슈지
차세대 발전소재인 SRI 형 인공근육(EPAM)을 사용한 각종 발전(發電)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태양이나 풍력 등의 특정 자연 에너지에 한정되지 않고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발전하는 이 방식은 응용범위가 넓고 코스트가 싼 것이 특징.

2. 아쿠아 사이언스 주식회사(<http://www.aqua-sc.com/>)

발표자 : 이사고 요이치
반도체에서 배양한 최첨단 세정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용 세정장치 개발·설치·판매를 행함. 세정에는 약품이 아닌 증기나 오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환경부하의 절감에 공헌할 수 있다. 이후에는 양산에 주력 해외로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태양전지 LED 에도 힘써서 프로모션하고 있다.

3. 주식회사 피아이 기술연구소 (<http://www.pird.co.jp/>)

발표자 : 키쿠치 야스오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용성 블록 공중합 폴리이미드(초내열성 수지)의 개발에 성공했다. 상온보존이 가능. 기능성(접착성, 감광성, 핸더 내성, 저유전율, 전착 등)의 부여가 가능한 것이 특징. 가나가와현의 산업기술센터와 리튬이온 전지의 재료, 폴리이미드의 전도재료를 개발하고 있다.

4. 시코 주식회사(<http://www.shicoh.com/>)

발표자 : 오스기 신지
휴대전화에 사용되고 있는 초소형 모터의 개발, 제조. 특히 휴대전화용 소형 카메라의 오토 포커스렌즈 구동용으로 개발한 보이스코일 방식 리니어 모터는 세계적 쉐어를 자랑한다. 코어 레스 모터를 베이스로 한 소형풍력발전기 및 수력발전기 시스템용 발전기의 개발에도 관여하며 세계를 향해 전개해 나가고 있다.

5. 이맥스 주식회사 (<http://www.eamex.co.jp/>)

발표자 : 세와 신고
이온 전도 액추에이터와 도전성고분자 액추에이터 두 개의 소재기술을 가지고 있다. 세계 처음으로 고분자 액추에이터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초연구에서 제품개발까지 행한다. 센서기술, 캐파시타 기술의 연구개발, 제품응용개발(휴대전화 카메라렌즈 구동 디바이스, 의료수술 디바이스, 인공근육)까지 폭넓게 활동.

6. AJI 주식회사 (<http://www.ajisso.com/>)

발표자 : 쿠니오카 이사오
실장분야에 대한 부품을 가공, 실장 공정, 검사 분야의 마켓. 물건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실장장치 비즈니스와 웨이퍼 레벨의 광학부품제조에 관련한 제조 노하우 및 특허 라인센스 재료 비즈니스가 두 개의 주축.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 LED 에 사용되는 렌즈로 사용되고 있다.

7. 리파인버스 주식회사 (<http://www.r-inverse.com/>)

발표자 : 오치 아키라
한번 사용한 오피스용 타일 카페트를 소재(영화비닐이나 나이론 등)를 통째로 분리·회수하는 기술을 확립. 이렇게 재생시킨 수지원료를 다시 카페트 등의 생산원료로서 제공하는 사업. 영화비닐 폐기물에서 재자원화 한 후 손님에게 제공하기까지 완전히 순환된 리사이클 방식을 갖는다. 앞으로는 나고야, 오사카에도 확대 전개해 나갈 예정.

8. 에피크루 주식회사(<http://www.epicrew.com/>)

발표자 : 하마자키 야스유키
2003 년 나가사키현 오무라시에서 기업권유를 거쳐 이곳에서 반도체 제조 장치를 제조, 연구. 도쿄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주로 「에피택셜 공정」에 특화된 마켓포지션으로 제품 및 기술 서포트를 행한다. 중고장치를 포함한 판매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개발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 프로세스용 데모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9. 아쿠아페어리 주식회사(<http://www.aquafairy.co.jp/>)

발표자 : 아이자와 미키오
고출력을 유지하면서 얇은 형태의 발전유닛의 개발, 또한 수소가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만 발생시키는 수소발생기술을 개발했으며 동시에 콤팩트로 매우 안전성이 높은 수소 발생제를 양산하는 기술에 성공했다. 외부충전기로서 모바일 연료전지인 상품 FS-STICK 를 개발. 올해 전반부터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 쓰쿠바세이코 주식회사(<http://www.tsukubaseiko.co.jp/>)

발표자 : 포우 호라이
웨이퍼, 기판, 각종 필름이나 절연체의 흡착을 해결하는 정전척 시스템을 설계, 개발한다. 현재 정전척을 벨트상태로 만들어 2 줄의 롤러에 걸치는 방식인 정전흡착 투입벨트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11. 주식회사 프로마테리얼(<http://www.pro-m.co.jp/>)

발표자 : 사이토 마사토모
스타링 엔진의 개발제조. 바깥쪽에서 열을 가해 움직이기 때문에 「외연기관」이라고 불리고 있다. 내연기관과 달리 다양한 연료·열원으로 가동할 수 있다.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동음이 조용하며 NOx 등의 배출물이 적어 환경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다. 방글라데시, 타이 등의 동남아시아로의 전개도 예상되고 있다.

12. 더블스코프 주식회사(<http://www.w-scope.com/>)

발표자 : W.K 최
고분자 필름기술을 이용한 연료 전지용 백금촉매, FPD 용 편광필름, 산업용 기능성필름, 산업과 의료용 필터 필름의 개발제조. 한국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있다. 주로 리튬이온·배터리용 세퍼레이터 필름의 제조에 힘쓰고 있으며 이후에도 세계적인 마켓규모의 확장을 예상하고 있다.

13. 솔라실리콘테크놀로지 주식회사 (<http://www.ss-t.jp/>)

발표자: 기마 토시오
태양전지용 실리콘 원료의 개발·제조·판매. 태양전지 셀·모듈에서 시스템까지 태양전지사업을 전개. 관서지역에 건축재 일체형 태양전지 모듈(BIPV)의 제조공장을 가지며 태양광발전의 보급사업을 전개. 대학이나 파트너기업과의 연계에 의해 다음 세대를 책임질 태양전지 셀·모듈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연구·개발 한다.



【코멘트】 금회에도 각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신 덕분에 충실한 프로그램이 되어서 매우 좋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협력해 주시고 참가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TSUNAMI 는 가나가와현의 실리콘밸리화를 목표로 일본경제의 활성화로 이어 나가고자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